

(나) 팔원 (백석) / (다) 기억할 만한 지나침 (기형도)

(가) 시에서 화자는 특정 인물에 주목하여 감정과 인식을 드러내기도 한다. 이때 화자는 인물의 외양을 관찰하여 인물의 사연을 그리거나 과거를 추측하기도 하고, 비슷한 처지의 인물과 자신을 동일시하여 인물에 대한 공감을 드러내기도 한다. … 인물이 처한 시공간 및 상황은 ㉠ 다양한 묘사를 통해 구체화되어 시적 상황 및 인물의 처지를 부각한다.

(가)는 (나)·(다)를 읽는 준거 글. 화자가 인물에게 다가가는 두 통로 — ① 외양 관찰을 통한 과거 추측, ② 동일시를 통한 공감 — 를 갈라 놓았다.

45번의 설계도. (나)는 ①, (다)는 ②에 대응한다. 이 짝을 뒤바꾼 선지가 정답 ④다.

①은 43번의 초점. '어떤 감각의 묘사인가'와 '그 묘사가 무엇을 하는가'를 분리해 판단할 것 — 감각 판정만 맞고 기능 서술이 어긋난 선지가 여럿이다.

(나) 차디찬 아침인데 / 묘향산행 승합자동차는 텅 하니 비어서 / 나이 어린 계집아이 하나가 오른다

'차디찬 아침' — 촉각적 이미지로 시간적 배경을 구체화하면서, 계집아이가 놓인 암울한 현실까지 함께 엮는다.

'텅 하니'는 음성 상징어. 다만 만들어 내는 것은 긴박함이 아니라 적막하고 쓸쓸한 분위기다.

43번 정답 ①의 근거이자 ② 함정의 자리. 음성 상징어가 쓰인 것은 사실이므로 '긴박한 분위기'라는 뒷말에서 걸러 내야 한다.

(나) 옛말속같이 진진초록 새 저고리를 입고 / 손잔등이 발고랑처럼 몸시도 터졌다

새 저고리(선명한 초록)와 갈라 터진 손잔등의 대비. 겉으로 갖춰 입은 옷과 몸에 새겨진 노동의 흔적이 충돌한다.

'발고랑처럼'이라는 직유로 손등을 시각화 — 외양 관찰이 인물의 사연을 읽어 내는 단서가 되는 지점.

45번 ① 근거이자 ④의 (나) 측 근거. (가)가 말한 '외양 관찰 → 과거 추측'이 실제로 작동하는 자리다.

(나) 싸하얗게 얼은 자동차 ⑥ 유리창 밖에 / 내지인 주재소장 같은 어른과 어린아이 둘이 내임을 낸다

⑥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차 안의 화자가 차 밖에 선 사람들을 바라본다. 계집아이가 몇 해를 일해 온 집의 사람들이다.

유리창은 안과 밖을 가르는 경계. 화자는 관찰만 할 뿐 저들과 말을 주고받지 않는다.

44번 ①·⑤ 함정의 판별 지점. ⑥를 통해 관찰의 주체가 바깥 인물로 넘어가지 않고, 화자와 다른 인물 사이의 소통이 일어나지도 않는다.

(나) 계집아이는 운다 느끼며 운다 / 텅 비인 차 안 한구석에서 어느 한 사람도 눈을 씻는다 / 계집아이는 몇 해고 내지인 주재소장 집에서 / 밥을 짓고 걸레를 치고 아이보개를 하면서 / 이렇게 추운 아침에도 손이 쫘쫘 얼어서 / 찬물에 걸레를 찼을 것이다

우는 아이 곁에서 눈을 흘치는 이름 없는 '어느 한 사람'. 화자는 자신의 슬픔을 직접 말하지 않고 제3의 인물의 행동을 빌려 연민을 전한다.

터진 손잔등이라는 외양에서 출발해 '몇 해'의 식모살이를 추측해 내는 대목. 종결어미 '~했을 것이다'가 추측임을 명시한다.

45번 ②·④·⑤의 (나) 측 근거. 어린아이가 내지인 집에서 노동해야 했던 상황을 통해 일제 강점기 현실에 대한 인식으로 확대된다.

(다) 눈은 퍼부었고 거리는 캄캄했다 / 움직이지 못하는 건물들은 눈을 뒤집어쓰고 / 회고 거대한 서류 뭉치로 변해갔다 / 무슨 관공서였는데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왔다

눈 덮인 건물이 '회고 거대한 서류 뭉치'로 보이는 순간. 도시의 건물이 사람을 짓누르는 서류 더미로 치환된다.

눈(흰색)이라는 색채 이미지로 계절적 배경을 구체화하는 묘사. 다만 시간의 순환성을 드러내는 장치는 아니다.

43번 ⑤ 함정의 근거이자 45번 ⑤의 (다) 측 근거. 도시의 억압적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이 이미지에 실려 있다.

(다) ⑥ 유리창 너머 한 사내가 보였다 / 그 좁고 큰 방에서 서기(書記)는 혼자 울고 있었다! / … / 침묵을 달아나지 못하게 하느라 나는 거의 고통스러웠다 / … / 나는 그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창밖에서 떠나지 못했다

⑥ 유리창을 통해 화자는 혼자 우는 서기를 보게 되고, 이 목격이 '고통스러웠다'는 감정 변화를 촉발한다.

느낌표로 마감한 행이 목격의 충격을 그대로 노출한다. 개입할 수도 떠날 수도 없는 상태가 이어진다.

44번 정답 ②의 근거. ⑥와 ⑥ 모두 '유리창'이지만 기능이 다르다. ③ 함정: 창밖을 떠나지 못했다는 것은 심리적 거리감이 아니라 그 반대다.

(다) 그리고 나는 우연히 지금 그를 떠올리게 되었다 / 밤은 깊고 텅 빈 사무실 창밖으로 눈이 퍼붓는다 / 나는 그 사내를 어리석은 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2연 — 화자 자신이 이제 '텅 빈 사무실'에서 눈 내리는 밤을 맞는다. 그 사내와 같은 처지에 놓인 것이다.

1연의 상황(눈·밤·텅 빈 방)이 화자에게 그대로 되돌아오는 배치. 동일시가 구조로 구현된다.

45번 정답 ④의 결정적 근거. (다)의 회상은 '외양을 바탕으로 한 과거 추측'이 아니라 동일시에서 나온 공감이다. ③의 근거이기도 하다.

작품 정리

갈래	(가) 시론(비평문) / (나)·(다) 현대시(자유시, 서정시)
성격	(나) 관찰적, 회화적, 비판적 / (다) 회상적, 성찰적, 비판적
작가	(나) 백석 / (다) 기형도

시점/화자 (나) 승합자동차 안에서 계집아이를 관찰하는 화자 / (다) 관공서 유리창 너머 서기를 목격했던 '나'

주제 인물의 처지에 대한 화자의 연민과 공감, 그리고 그것이 가리키는 현실 — (나) 일제 강점기의 고통, (다) 도시의 억압적 일상

특징

- (나)는 축각('차디찬 아침', '시각('진진초록', '밭고랑처럼 터진 손잔등')·음성 상징어('텅 하니')를 겹쳐 상황을 구체화함
- (나)는 외양 관찰에서 출발해 '~했을 것이다'로 인물의 과거를 추측하는 방식으로 사연을 완성함
- (나)는 화자의 감정을 직접 말하지 않고 '어느 한 사람'의 행위에 실어 전달함
- (다)는 눈 덮인 건물을 '희고 거대한 서류 뭉치'로 전이시켜 도시의 억압성을 형상화함
- (다)는 1연의 상황이 2연에서 화자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구조로 동일시와 공감을 드러냄
- (나)의 ㉠와 (다)의 ㉡는 같은 '유리창'이지만, 전자는 관찰의 경계, 후자는 감정 변화를 촉발하는 매개체로 기능함

등장인물

- (나) 화자: 묘향산행 승합자동차 안에서 계집아이를 지켜보는 관찰자
- (나) 계집아이: 진진초록 새 저고리를 입었으나 손잔등이 터진 아이. 자성으로 가는 길이며, 몇 해를 내지인 주재소장 집에서 일했다
- (나) 어느 한 사람: 우는 아이를 보고 눈을 씻는 이름 없는 승객. 화자의 연민을 대신 드러낸다
- (다) 나(화자): 우연히 관공서를 지나다 우는 서기를 목격하고, 훗날 같은 처지에서 그를 떠올린다
- (다) 서기: 눈 내리는 밤 좁고 큰 방에서 혼자 울고 있던 사내

구성

- (가) 인물에 주목하는 두 방식(외양 관찰 → 과거 추측 / 동일시 → 공감)과 묘사의 기능 ㉠ 제시
- (나) 1~3행: 차디찬 아침, 텅 빈 승합자동차에 계집아이가 오름
- (나) 4~8행: 새 저고리와 터진 손잔등의 대비, 아이의 행선지 제시
- (나) 9~12행: 유리창 ㉠ 밖 주재소장 일행, 아이의 울음과 '어느 한 사람'의 눈물
- (나) 13~16행: 아이의 지난 몇 해를 추측하며 마무리
- (다) 1연: 눈 내리는 밤 유리창 ㉡ 너머 우는 서기를 목격하고 떠나지 못함
- (다) 2연: 텅 빈 사무실에서 그를 떠올리며 어리석다 여기지 않음

전체 줄거리

(나)의 화자는 차디찬 아침 묘향산행 승합자동차에서 어린 계집아이를 만난다. 새 저고리를 입었지만 손잔등이 밟고랑처럼 터진 아이는 삼백오십 리 밖 자성으로 가는 길이다. 얼어붙은 유리창 밖에서는 내지인 주재소장 같은 어른과 아이들이 차비를 내고, 계집아이는 흐느껴 운다. 차 안 한구석에서 어느 한 사람이 눈을 씻는 가운데, 화자는 아이가 몇 해 동안 그 집에서 밥을 짓고 찬물에 걸레를 쳤으리라 짐작한다. (다)의 화자는 눈이 퍼붓던 캄캄한 밤 우연히 관공서 앞을 지나다, 유리창 너머 좁고 큰 방에서 혼자 울고 있는 서기를 본다. 개입할 수도 자리를 뜰 수도 없었던 화자는 그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창밖에 머문다. 시간이 흘러 이제 텅 빈 사무실에서 눈 내리는 창밖을 보며 그를 떠올린 화자는, 그 사내를 어리석은 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